"무엇보다 가장 바라는 것은 볼링을 오래도록 치는 것이다"

2011세계시각장애인볼링대회 4종목 석권한, 탁노균 선수

올해 10월 7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제4회 세계시각장애인볼링선수권대회'에서 우리나라는 금메달 6개, 은메달 8개, 동메달 4개를 획득하며 종합우승을 차지했습니다. TPB1(전맹종목)에 출전한 탁노균 선수는 금메달 4개를 획득해 우리나라가 우승을 하는 데에 가장 큰 몫을 해냈습니다.

국내 유명 항공사에 다니던 그는 시각장애로 인해 직업을 잃고 큰 좌절을 겪기도 했지만, 볼링을 통해 재활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대회 우승까지 이뤄낸 그의 마지막 목표는 자신이 좋아하는 볼링을 나이가 들어서도 오래도록 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의 식지 않는 열정과 도전에 응원을 보냅니다.

◀ 11월 11일 전국시각장애인볼링대회 시상식에서 탁노균 선수가 트로피를 받고 있다

▲ 세계시각장애인볼링대회 시상식 장면

■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시각장애인을 끌고 가지는 마세요~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시각장애인이 짚고 가는 흰지팡이를 잡아끌거나 시각장애인의 팔을 잡아당겨 끌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시각장애인에게 묻지도 않고 갑자기 팔짱을 끼는 경우도 있고요.

이는 올바른 안내방법이 아니랍니다. 시각장애인을 안내하고 싶다면,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본 후 자신의 팔을 시각장애인에게 내밀어 주시면 되요.

후원안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전국 50만 시각장애인의 복리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각장애인 기관입니다. 후원자님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중히 쓰일 것이며 후원자님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문의전화: 02-6925-1113)

(지로번호 7608162)

계좌번호 국민은행: 835-01-0114-768, 497801-96-200273 우리은행: 428-04-103943
하나은행: 757-810001-08405 외환은행: 170-22-00710-6 (예금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손으로 보는 세상 | 제17권 12호 통권 137호

2011년 12월 15일 발행

발행처 :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제작** : 쥬비컴 디자인전문회사 (T. 02-2091-1255)
발행인 : 최동익 **편집** : 노상미
전화 : 02-6925-1121 팩스 : 02-6925-1117
Homepage : www.kbuwel.or.kr, 한글도메인 '시각장애인.kr',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kr'
E-mail : kbuhongbo@hanmail.net
우)150-917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표지 사진설명〉 – 아래쪽부터
· 한글점자제정 85주년 기념 세미나
· 시각장애인볼링선수 탁노균 씨
· 〈감각의 확대, 관계의 확장〉展

손으로 보는 세상

2011. DECEMBER | Vol. 137호

사단법인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2차원바코드가 실려 있습니다. (우측상단)

테마기획

시각장애인들의 훈민정음, 한글점자가 만들어진지 85주년이 되었어요~

최근 세종대왕의 한글창제 과정을 다룬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었다면, **송암 박두성 선생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한글점자인 '훈맹정음'을** 만들었습니다.

1926년 11월 4일 한글점자가 처음 발표된 날을 기념해 매년 이날을 점자의 날로 정해 기념해오고 있으며, **올해로 점자가 만들어진 지 85주년**을 맞았답니다.

우리 연합회는 11월 4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한글점자의 발전을 논의하는 세미나, 점자보조공학기기 전시회, 점자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 보조공학기기 전시회

▲ 경품추첨

▲ 점자의 날 기념 세미나

▲ 낭독회

우리 연합회에서는

홍콩 시각장애인 기관으로 해외연수 다녀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는 16개의 지부와 182개의 지회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합회에서는 작년부터 지회장을 대상으로 해외 선진기관 연수를 다녀오고** 있는데요, 올해는 11월 11일 부터 14일까지 **지회장, 안내인 등 65명이 홍콩 시각장애인기관을 방문**했습니다.

홍콩 시각장애인 기관

병원, 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 용품 판매점 등이 한 건물에서 함께 운영되고 있다.

▲ 최동익 연합회장(왼쪽)이 홍콩시각장애인연합회에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NEWS ALBUM

1 '**제2회 시각장애인 여성지도자 연수회**'가 11월 1일부터 1박 2일간 충남 아산에서 열렸습니다.

2 11월 18일 국제의료관광업체인 (주)엠아이에셋과 '**시각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재능나눔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치과, 피부과, 성형외과 치료를 시각장애인에게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3 **일본시각장애인협회(Japan Federation of the Blind)**의 Yoshihiko Sasagawa 회장과 Yoshiki takeshita 부회장 등이 2박 3일 일정으로 우리 연합회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4 11월 23일 여의도 KBS 라디오 공개홀에서 열린 '**올지마 톤즈-사랑 그리고 희망, 청소년 행복나눔 콘서트**'에서 시각장애인용으로 특별 제작된 '올지마 톤즈' DVD를 전달받았습니다.

포커스

눈을 감고 즐기는 특별한 만화전시회,

'감각의 확대, 관계의 확장' 展

전시회는 당연히 눈으로 보는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그런 고정관념을 깬, 시각을 제외한 감각들로 작품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내년 2월 26일까지 한국만화박물관, 유럽자기박물관, 부천활박물관 등에서 진행되는 **<감각의 확대, 관계의 확장>**전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국내 유명 만화작가들의 원화를 부조, 입체, 팝업북 등으로 새롭게 제작해 촉각만으로도 만화를 즐길 수 있으며, 차를 음미해 보는 **「오감으로 만나는 유럽의 차문화」**, 암막시설 내에서 붓글씨와 플라스틱 칼로 떡을 썰어보는 **「나는야! 한석봉과 어머니」** 등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시문의) 전화 032) 310-3021(한국만화영상진흥원)

전시작품들

▲ 「감각으로 보는 할」, 「오감으로 만나는 유럽의 차문화」 프로그램

▲ 시각장애인들이 만든 작품

보건복지부 인기 웹툰 <안녕, 딱공>의 주인공 정지은 양이 자신의 캐릭터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